

“광주지하철 2호선 빨리 결단을” “의견 수렴후 이달내 결정”

광주시의회 민선6기 첫 행정사무감사·예산 심의

광주시의회가 민선 6기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돌입했다. 광주시의회는 4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8일까지 45일 간의 일정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오섭(새정치·북구 2) 의원의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부지 이전’, 반재신(새정치·북구 1) 의원의 ‘도심재생 사업’ 관련 5분 자유발언과 김동찬(새정치·북구 5) 의원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조성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결의안’과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중앙부처 등에 송부했다.

“무등산 군부대 이전비용·대체부지 국방부가 책임져야”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19~내달 5일 내년 예산 심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 이달 결론내나=김동찬 의원은 이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토부가 최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에 대한 시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시는 아직 미결정이라는 원론적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재정과 수송수요 예측 검증 등을 위한 기술자문 전담팀이 지난 9월 중순 재검토를 결정했는지 이후 한달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데이터에 의존한 재정과 수요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대중교통 환경, 녹색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 나주혁신도시를 포함한 광주위성도시 확장 비전 등을 종합해 조속히 건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이달 중으로 재정, 교통수요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 TV토론과 공청회를 거치고 시의회 의견 수렴절차를 마칠 것”이라며 “최대내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기본설계비 52억원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내년 설계비 136억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광주시 도시철도 관계자를 불러 2호선 건설여부를 이달초까지 결정할 것을 통보했다.

◇무등산 군부대 이전 촉구=조오섭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등산 정상상의 군부대 시설의 신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하며 이전비용 및 대체부지는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군부대 이전이 논의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국방부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 만큼 예상되는 이전비용 200억은 물론 대체부지 선정도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등산 정상은 1966년부터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용해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지난 1996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광주시와 국방부가 협약서를 작성해 사용하

고 있다”며 “협약서에 국방부가 군작전 임무 종료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무 종료시점을 광주시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 협약에도 광주시는 1998년부터 2년에 한번씩 토지사용허가서까지 내주고 있다”며 시에 시정을 촉구했다.

◇향후 일정=시의회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15년도 본 예산을 심의한다. 이어 내달 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선 6기들어 진행되는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의 3차원 영상변환 한미합작법인인 갠코(GAMCO)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주경남 행정위원장은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앞서 논란이 된 ‘세월호’ 전시 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부적절한 대응과 전반적인 광주시의 문화정책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정책대안을 요구하고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와, KTX 광주역 경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민중 산건위원장은 “민선 5기 잘못된 사업을 되짚어보고 그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 장애인재활병원 운영 정상화,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의 반복적인 하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3건 등 모두 22건의 일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일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동서화합포럼 전남·경북 현안 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공동 간사, 이낙연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와 기초단체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경북 국회의원 등 80명 지역현안 국비 확보 손 잡았다

무안공항→김대중공항, 동남권 신공항→박정희공항 명명 검토

동서화합포럼 국회서 현안간담회

박정희, 김대중 전직 대통령 생가 교차 방문으로 우의를 다졌던 동서화합포럼의 전남과 경북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의사랑 사랑재에서 열린 ‘전남·경북 현안간담회’에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동서화합포럼 소속 전남·경북 국회의원, 전남도지사와 경북도지사, 전남·경북도의회 의장, 전남·경북 기초자치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 시종 화기에 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전남·경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을 각각 상징하는 구미 새마을을 예산, 하의도 연륙교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결하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은 ‘김대중 공항’으로, 아직 검토 단계인 동남권 신공항은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건설’,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에 대한 국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은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봉화-울진 간 국도 확장’, ‘해의 통시명 인증 랩 구축’ 사업 등의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는 상호 협력 과제로 ▲조선감염 역사고도 관광지원화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공동 유치 ▲국도 끝섬 주민간 교류 추진 ▲전남·경북 농특산물 331장터 운영 ▲공무원 교류 추진 ▲생활체육 교류 추진 ▲전(前) 대통령 내일 활용사업 등 7가지를 선정했다.

- 전남·경북 상생협력 과제
- 조선감염 역사고도 관광지원화
-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 국도 끝섬 주민간 교류 추진
- 공무원·생활체육 교류 추진
- 농특산물 331장터 운영
- 전 대통령 내일 활용 사업

이날 박지원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경상북도도 경제가 어렵지만, 전라남도도 더 어렵다”며 “최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전남에서) 당선돼 전남에 예산 폭탄이 떨어질 걸로 예상했는데 예산 폭탄은 안 떨어지고 빠라만 떨어지고 있다”며 뼈 있는 말을 건넸다.

이에 최 부총리도 “저 나름대로 동서화합포럼 회원으로서 예산안 편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동서화합포럼 첫 모임 때 88고속도로 빨리 추진하자 했는데 내년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반드시 개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남·경북 국회의원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기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동서화합포럼 전남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은 이날 “영호남이 화합해서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기구 만들면 야당안 바로 낼 것”

강기정 의원...공노총·전공노 오늘부터 전 공무원 대상 찬반투표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정부나 새누리당이 만들면 야당의 안을 바로 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제로 한 ‘정치와 정당의 혁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 “사회적 합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의 안을 내는 것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2009년에는 공무원연금이 소득 비례 연금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해놓고 갑자기 공무원연금을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며 “5년 만에 공무원연금이 소득 비례 기초에서 소득재분배 기초로 전환돼 공무원연금의 위상에 혼란이 일어난 지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도 공무원연금공단과 새누리당이 하고 있지, 정부는 뒷전”이라



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지부별로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는 공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107만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법의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6~10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화순아울렛
밀레·라푸마 OPEN!!

패션은 옷으로 하는 자기소개다. 그러므로 라푸마를 입었다면 당신은 가장 스타일리쉬한 자기소개를 한 셈이다. 이것이 라푸마 이펙트.

Lafuma Effect

COLDZERO

빈틈없이, 온기를 잡았다. 본체선의 통을 두께의 패딩테이프로 덧대 방기를 차단하고 온기를 유지시키는 밀레만의 다중 산기술.

COLE AIR / COLDZERO 공명 / DOWN / DOWN FROM TUBE / WARM AIR / COLDZERO TECHNOLOGY

MILLET 061-371-7337 / 010-8288-3579

Lafuma 061-375-8998 / 010-3618-9615

OPEN AM10:00 / CLOSE PM09:00 화순현대병원건너편